



한국 대학생 5월 축전 개최

‘젊음, 광장에 서다’ 주제로… 11기 한총련 평화적으로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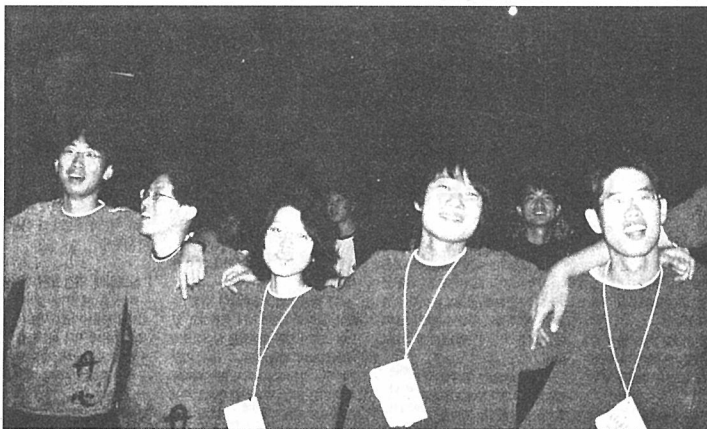
11기 한국대학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을 포함한 ‘한국대학생 5월 축전’이 지난날 30일(금)부터 6월 1일(일)까지 3일간 연세대학교 및 서울서부지역 대학교, 인근 곳곳에서 진행됐다.

1만 5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의 주제는 ‘젊음, 광장에 서다’. 1987년 6월 학생과 2002년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듯 역사는 언제나 광장을 점령한 사람들의 편이다. 2003년,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통한 미국 반대,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300만 대학생이 다시 광장에 서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였다.

이번 5월 축전은 학술·문화제전, 과반학생의 교양이 장이 활발히 열리는 등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함께 열려온다. ‘새로운 학생운동’의 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찰이 11기 한총련 출범식을 불법집회로 규정, 연세대 주변에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등 총알이 우러졌지만 큰 무력충돌없이 평화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달 30일(금), 연세대 노천극장에 열린 ‘한총련 출범 10주년 기념대회’로 5월 축전의 막을 올렸다. 한총련의 결성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서 한총련의 역대 의장뿐만 아니라 한총련의 전신인 전국대학생대표자회의(전대협) 출신 송영민 현 민주당 의원, 이인영 1기 의장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한국대학생문화제전’에서는 곧 열릴 6·15 민족통일대화와 관련, ‘통일-민족공조’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졌다.

다음날인 31일(토), 연세대 교정 곳곳에서는 제 1회 한국대학생 학술대전이 진행됐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진보적 담론을 제시하는 취지로 올해 처음 개최된 학술대전은 김민호 재민인민, 손석준 (한겨레)



▲ 한국 대학생 5월 축전 ‘첫해날’의 지난날 30일(금) 연세대 노천극장에 모인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는선익, 통일운동가 안재구씨 등 다양한 강연자들을 초청하여 펼쳐졌다.

이어 연세대 교정 곳곳에서 ‘제1회 한국대학생 문화제전’이 열렸다. 먼저 ‘한국 대학생들의 큰 봄’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봄·노래 한마당’에서는 율동과 스포츠 댄스, 미인 등 다양한 공연이 선보여졌다. 곧이어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앞 거리에서 열린 ‘통일한마당’에서는 ‘꿈’을 모은 대대적인 발표회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진행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후 8시경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2003 반전평화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자주평화 촛불 행진 △행동하는 젊음, 반전평화 open space 등으로 진행된 행사를 참여하고 다시 학생들은 연세대 노천극장으로 모여 제11기 한총련 출범식을 열었다.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11기 의장으로 추대된 장재웅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한총련 출범 10년 역사는 새로운 학생운동을 여는 도약의 밑거름”이라며 “이번 밑거름을 통해 자주와 통일을 시대이념으로 자리매김하고 3백만 학생을 모두 포괄하는 학생운동의 정상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재웅 신임 의장은 또한,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한총련을 만들겠다”면서 “실력과 양보로 서로의 오해를 풀고 대중의 진심과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다”라며 한총련 학생들의 단결을 다짐했다.

한편 행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일), 출범식을 마친 학생들이 용산대교까지 인강대까지 대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지지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에 열린 민족자주 결의대회에 참석, 경찰과 큰 마찰없이 무난히 행사를 치러 5월 축전의 대미를 장식했다.

양창도 기자

서울배움터 도서관 개방관련 공청회

개방 필요성에는 공감, 개방시기에는 이견

학생-예산문제 해결하고 학생의견 수렴한 뒤 개방
학교-일반 개방 지속하고 발생하는 문제 해결

서울배움터 도서관 개방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가운데 도서관 개방관련 공청회가 지난날 28일(수) 서울배움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학생측 패널리스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군, 외대발달학생주권위원회 위원장 최희민(서양·영어 96)군, 도서관학생위원회 위원장 최희민(서양·영어 96)군, 학교측 패널리스트 차용삼 도서관 열람부장, 이만중 기획조정과장, 김미자 기획조정과 직원이 참석했고 사회자는 서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장경호(통일·중국어 96)군이 맡았다.

도서관 개방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주로 학생측 패널리스트 도서관 개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측 패널리스트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 자체에 대해 차용삼 열람과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차원에서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외부인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었다”며 이번부터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외부인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을 원하는 것만은 새로운 것은 ‘외부기관이 대학을 방문하는 항목에 하나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도서관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서 그는 “시범기간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고등교육 이하의 학생들은 출입을 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해 도서관 학생위원회의 위원장 최희민군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외부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 출입구에 있는 안내실 뿐이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책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장인 유복재군은 이번 개방을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예산되는 문제해결을 미리 해결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서관을 개방하자”고 주장했다.

이해 차용삼 열람과장은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공감한다”라며 “도서관 개방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지켜본 최영수(서양·영어 96)군은 도서관 개방에 따른 논란의 근본원인은 “사실상 학생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은 대학당국의 ‘행정편의적’의 결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생들이 도서관 개방에 대한 본분을 이해한다면 대부분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도서관 앞에서 진행됐는데도 온·오프라인 상에서 도서관 개방에 대해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것과는 달리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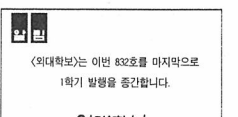
권정우 기자

김현민 학우들기 주점 마련돼

영여와 학생회와 외인시대가 3월(화), 4월(수) 양일간 김현민 학우들기 주점을 연다. 3권을 앞세워 열리는 주점의 개점식은 오후 6시이며 폐점식은 저녁 11시이다. 김현민(서양·영어 01)군은 지난 학년단 재학생들 중 소외된 학생들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점을 마련했다.

NEIS 문제 해결 촉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담 1089개 시민사회인 단체들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롯데나루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NEIS 논란은 ‘정보인권’의 문제라며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인권 수호를 촉구했다.



외대학보는 이번 82호를 마지막으로 1학기 발행을 중단한다.

조선·한국일보, 용인외고 관련보도 오보로 판명돼

용인 총무처장, “아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에 보도된 ‘용인외고’에 관한 기사는 오보로 판명됐다. 지난날 27일자 〈한국일보〉는 ‘지자체 특목고 추진, 안 되면 말고’라는 기사에서 ‘용인외고는 재향아군이 불무명향 상해 고 보도해 외교 설립에 관해 주위의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는 지난날 21일자 〈조선일보〉 경기도 특목·특

선하고 15개 표’라는 기사가 잘못 확대 해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조선일보〉에 발표한 “그 기사를 실은 것은 용인 외교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의 무계획적인 사업이고 설립에 대해 포괄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날 30일 용인외고 설립에 1987년의 예산지출 계획을 토대로 했다.

용인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용인배움터 총무처장 조기정(경상·생명과학전공)은 “기사를 본 〈한국일보〉가 오보라는 것을 시인해 왔다”며 “처음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이제 설립은 현재 아무 차질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만 2천명 부지에 2005년에 드디어 예정인

용인외고의 정식 명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이다. 작년 12월 안병만 총경과 용인시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기숙사 뒷편 부지를 제공하고 설계 및 시공, 장비 모든 부분에서의 예산을 용인시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타 건설 회사에 설계안을 공모했고 5월 9일 학교측과 용인측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동우건축의 설계안이 채택됐다. 오는 6월에 교육청에 학교 인허가 절차를 받게 되는 용인외고는 오는 8월말 착공 하며 2005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최진민 기자 item1004@hanmail.net

6.13 1주기 추모대회, 자주 평화 실현 촛불 대행진

효순이 미선이의 약속

6월 13일 다시 만나요!

미군정집착 야중생 고 심미선 신효순 삼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 antimigun.org / 02-757-7924 / 02-776-8948

도서관 개방, 미리 알았어야

▲서재와 도서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물론 두 곳 모두 책을 보관하는 곳이지만 하지만 두 곳은 규모에서 차이가 확연하다. 책을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서재는 소수에 사랑을 위한 곳이라면 도서관은 그렇지 않다. 도서관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 진 거다. 그래서 도서관은 공공성을 띠는 것이다. 도서관의 설립원칙을 이해하는 학생이라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외부인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에 반대해서는 않을 것이다.

▲지난달 9일 서울배움터 도서관측이 도서관 앞에 외부인에게 도서관을 개방한다고 게시한 이후 학생들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도서관 개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서관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고등학생들이 도서관에 들어와 민화복지를 해칠 것’과 ‘외부인으로 인해 도서관 좌석수가 부족하게 될 것’ 등으로 국한된다.

▲이 논란은 자세히 따져보면 쉽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은 고등학생이상의 외부인에게 도서관 열람과 복사권이 허용된 편이다. 이 외부인에게 배정되는 별도의 이용카드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며 매년 도서관을 방문할 때마다 신분증과 방문증을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좌석수가 부족한 시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이번 논란은 학생 대부분이 ‘우리학교 도서관이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만약 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을 개방한다는 사실을 배우기 이전에, 개방의 이유, 외부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면 학생들이 그토록 우려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훗날 하나 하나 세워놓고 학생들의 이해를 바라는 것은 도서관개방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 학생이 말한 것과 같이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예일 거다.

이제부터라도 대학교들은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편집장

사설

NEIS, 합리적인 대안 찾아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시행을 둘러싼 갈등으로 교육계가 극한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특히 NEIS의 콘텐츠에 인권침해의 소스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들어 반대하는 전교조는 고성과 점에 대해 대립하고 있고, 교육부는 우열상향하면서 내부 부패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모두가 문제의 본질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일은 외면한 채, 연가투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과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주장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한다.

NEIS 문제가 현재의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부가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권침해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 스스로 NEIS 시행을 앞두고 얼마 전까지도 문제를 보완하면서 강행하겠다고 했다. 전교조와 전면 재검토를 합의하는 등 오작가각하하면서 더욱 혼란이 가중되었다.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 전국교, 교강조, 그리고 일선의 정보교사 등은 이미 97% 이상의 학교에서 NEIS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CS(학교교육정보관리시스템)를 들어갈 경우, 비합리하면 NEIS보다 40배나 더 들어가고, 해킹에 더 취약하고, 대학 수시 모집 등 학사운영의 차질이 예상되며 큰 반발이 있다.

NEIS가 인터넷에서의 효율적인 정보추진 구현을 위한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앞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국의 모든 초, 중, 고, 고학의 12년 동안의 기록과 학부문의 신상에 관한 정보까지 한 곳에 모두 수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온 국민의 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써부터 야기될 만한 인권침해 문제는 당연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시행에 들어가고, 50%의 원아나 되는 국민의 행태가 들어간 NEIS를 그냥 폐기할 것만 주장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집단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을 담보로 한 학교 교육의 파행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6월 1일자로 다시 발표된 교육부의 시행 지침에 따르면, 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의 제거를 강조하고 교육, 학사, 보건, 인·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현저한 항목은 우선 삭제 후 시행하며, 법률 및 정보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로 새로 구성하여 2003년 말까지 인권 침해와 관련 법률의 보완 검토를 완료한다 한다. 이제 교육부는 더 이상의 극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학교육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보다, 어떠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환경을 원활하게 서비스하느냐 하는 것이다.

후사의 소리

강의실 문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

화창한 봄날 속의 축제, 5월이다. 우리 외대 또한 화창한 5월의 끝자락에 서있다. 가슴이 설레어 강의실에서 지루한 수업을 듣기보다는 명수상에서의 친구들과의 수다가 더욱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다.

나는 문득 추측적으로 우리의 강의실 문화에 대해 한마디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고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남들 눈 어떻게 비춰질지 두려움이 앞서 한동안 망설이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교과서적인 예절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외대인들에게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을 내 나름대로 쓰고 고하는 것이다. 대학생이 대학생들의

주안점을 어디다 두는가는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서판에서 공부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에게는 제일 존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대형 강의실에서 어떤 학생은 5분내지 10분내 늦게 들어서서 휴대전화로 같은 수업을 듣는 또 다른 학생에게도 들어 앉아 있다고 묻는 학생도 있고, 수업 중 걸려온 전화를 소곤거리며 받는 학생, 앞자리와 친구와 큰 목소리로 떠드는 학생, 출석체크 후 강의 시작할 교수를 등지고 나가버리는 학생 등 기본적인 강의의 매너를 무시하는 일이 너무 빈번한 것 같다. 정작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도 그런 학생들을 종종 하나이기에 이 글을 쓰면서도 느끼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학생들의 이 같은 행동들은 강의하는 교수님에게는 물론이고 진지한 자세로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문화는 그 집단의 수준을 드러낸다. 우리의 강의 문화는 어떤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자리한 참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대인을 만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대학 강의가 우리의 대학 생활에 주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느끼고 반성해보았으면 하며 이 글을 마친다.

박지현

(동명학·플랜트 02)

외대인의 도덕불감증

내가 새내기였던 1998년부터 4학년이 된 올 2003년까지 변화가 없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외대인의 부도덕한 도덕불감증, 즉 시험에서의 부정 행위(이하 카닝)다.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무슨 문제 삼느냐고 오히려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심각하다.

물론 이것은 외대에서만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카닝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방지할 적절한 장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을 잘 일일이 감독하는 것도 쉽지 않을테니 카닝방법도 갈수록 치밀하고 대담해지

기 때문이다. 한때는 카닝이 대학의 낭만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카닝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카닝으로 성적이 휘발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심지어 카닝한 학생이 정학당하기도 한다.

카닝은 노력없이 점수를 얻으려는 일방적인 지식도둑질이다. 도서관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큼 강의실에서 자식을 훔치는 것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파렴치한 무식한 채 오로지 수기의 결과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양심 잃은 학생들은 걱정해야 한다. 그것이 잘못되고 부끄러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성세대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자신이 사회에 나가서는 과연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다.

매년 학생들이 카닝대열에 어릴 수 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예를 대우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대학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불사살 기호한 강력한 대학을 세워 시행하기 전에 우리와 대인 스스로 고쳐가야 할 것이다.

조현철

(서양·프로그래밍 96)

삼보일배 '소리없는 절규'

생명을 위한 기도

"개별이라는 이름 하에 파괴되고 있는 자연, 전쟁과 온갖 폭력 속에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겠습니다. 나의 딸 한 줄, 나의 기도 한 마디가 죽어 가는 세만금 깃발의 생명들과 공감을 이루고 나뉘길 수 있도록 간절히 마음 모으겠습니다." 삼보일배를 떠나기 전 문규현 신부님의 편지에서 이 사탄의 시대에 '검둥이'란 말이 의미를 갖고 있을까? 답답한 우리에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남아 있을까? 오늘 300Km의 여정을 마치지 그 서울에 돌아오는 문규현신부님의 수장성당의 모습은 우리에게 끝자 그대로 감동을 주었다. 수능과 삼보일배의 응용, 새 걸음마다 한발의 큰걸음을 걸으며 무언의 시를 하는 모습, 뜨거운 아스팔트 위의 열기와 오버랩되는 이분들의 발발음, 이분들은 서울에 일하는 순간 서로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현실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

대해서는 가장 비폭력적이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장 열렬하게 정신을 투사하는 열렬성이 보는 이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리의 희생양 '세인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 민중 사업은 지금까지 '정치'로써 희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호남민심을 위한 노력의 공약이었고 당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나 취소되었다가 전복 주민들이 이에 실행하자 이들의 표를 끌어 오기 위해 다시 부활시킨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어느 당도 표를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명목에 호남정당이라고 노무현 후보도 대통령에 되더라도 선거가 달라진 모양이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막대한 현금을 투입하여 생태계의 보고를 파탄이 부조리한 사업을 대통령이었던 당장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노무현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추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김태웅

(사유학·철학 96)

미트집습니다

지난 831호 1면기사 '도서관 개방 논란' 기사에서 도서관 학생위원회 위원장 이우재군은 '최소한의'의 잘못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오디하북

의·대·만·평 <12>



831호 비평

다채로운 대동제 특집기사, 깊이 있는 취재 아쉬워

831호 외대신문은 양배출터의 축제기간에 맞춰 '대동제' 특집 기사를 준비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철도교 이후 준비해 왔던 행사에 대해 아쉬웠던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음을 뿐만 아니라 그 열기도 대단했다.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는 물론 학생들의 들뜬 마음까지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사사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서울배출터는 5 일 동안 축제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의 모든 행사와 내용을 소개한번 기사를 지루해할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대동제'라는 주제에 여러번의 새내기 수습기사가 축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그 중 눈여겨볼 행사를 중심으로 각각의 기사를 종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축제전반을 깊이있게 다루지 못한점은 아쉽지만 여러 사람의 시각이 잘 드러나고 내용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평가를 받았다.

왕인배출터 대동제는 지난 해 보다 대체로 문화행사가 눈에 띄게 많았기 때문에 기자가 직접 축제의 주체가 되어 그 느낌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일동안 담담기사를 비롯한 여러면이 한 조각 되어 한일부러 반지점까지 가는 가능한 모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애썼다.

취재 후 양배출터 축제의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진선발과 취재도 신중을 기울였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표정을 1면에 쓰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진이 일관적으로 부족해 통일성이 없는 지면을 만들었다. 이는 사진부 기자가 일관적인 지난 몇 년 저널리즘이 문제점을 받는 부분이다. 사진 한 장이 기가막히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큰 전달력을 가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시급하게 조정해야 할 문제이다.

장은경 기자

명상



김경기
(루미아아과교 교수)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최근의 큰 이슈는 교육부의 NEIS이다. 친 전교조였던 교육부 장관은 장관이 되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더니 얼마 안되어 문제점이 없다고하는 등 오작가각하다가 전교조가 연가 투쟁 조짐이 보이

History가 Herstory?

이렇게 크게 시작되는 않지만 그간의 한국의 가족 제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후주제 제도를 폐지하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극치라고 보여지는 이 제도 폐지 운동에 유학자를 중심으로 한 노인들이 대하고 있지만 정서와 세력 면에서 밀

혼란의 시대

자 전교조 권으로 선회했다. 지금은 이에 반발해서 기존의 전통 교육단체들이 장관의 퇴진을 의치는 등 삼성제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 대해 토론할이 있었지만 사실 어느 쪽이 옳은지 장담이 할것없는 것처럼 보통의 일반인들도 그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이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두 세력간의 지존심과 힘 겨루기 문제로 변질되어가는 조짐이다.

리는 것 같다. 바야흐로 '오레스테이아' 3부작에서 부견의 승리를 선언한 재판관 손 한국으로 문화가 될 것 같고 '이탈리아의 딸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history'가 아니라 'herstory'가 될 판이다. 내 스스로는 후주제의 무용성을 찬성하는 편이지만 이를 필의 성을 부도 중 한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라도 상이 될수 있다는 점에 나 자신도 사실 정신이 산만하다.

독선적 오만을 버려야 할때

'개배스'의 마녀들이 예언한 이 가지 판의 혼란 시대에 우리는 한가지로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선택이 쉽지 않다. 점점 판의 예언한 능력은 점점적인 율령 현상에 묻히게된다. 이런 때 선택하는 좋은 방법을 말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우리가 선택의 경우에서는 인의는 것을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은 '죄와 벌'의 리스틀리나 코프처럼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데올로기란 불완전

한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다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몰려다니고 있다면 사람들은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문자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된다. 그 문자가 보여주는 지식도 참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가 이제 옳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오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옳은지'라는 성찰 스님의 반문이 마음에 사무친다. "나는 나에게 거짓말하고 눈은 나를 속인다"라는 루마니아의 시인 에네스쿠의 사투리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아바지'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묻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대는 파헤쳐할 우리들의 독선적인 오만을 지적하고 있다.

NEIS 반대 NICE!

전교조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투쟁!



제목 : 시행 논란 있던 NEIS 결국 유보기로 결정했다는...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사서전공자

정말 교육부가 머리가 있나?
XX자식들

NEIS 그게 뭐에 쓰는 물건인?
- 용의

내 돈 돌려라!!
- 돈 조오아

개발비 = 국민의 혈세
- 한국민

인권은 어찌하고... 학생은 인간도 아니냐?
- 밥들이

말면 말지. 유보가 뭐냐
나, 유부녀라니 뭐냐

와 왔더니 갔더니...
- 통다리

내 대학생이냐 상관없어
- 귀차니즘의 대명

인권위원회 바보 - 그러게 왜 초반에 전교조만 의논하냐!
- 년교조

전교조면 다 싫다나
- 행인



대여 농구공 반납 안내

왕인배출터 학생회 커뮤니티에 붙여진 농구공 대여자의 신분증이다. 신분증의 주인은 농구공을 반납하고 양성과 신분증을 되찾길 바란다.

김훈훈 기자 yonghun2000@hammail.net

서울총학, 학생과 '거리좁히기' 주력

등록금 투쟁은 대체로 '소극적' 평가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유복재·강정호는 이른바 '우리학생회'라는 화두를 던지며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생회의 거리 좁히기를 주된 목표로 제시했다. 거리를 좁히는 방안으로 도서관 앞에서 녹자트와 일주일에 한 번씩 과방을 참여하는 등 학생들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비록 앞서 사술한 방안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지만 여섯 학생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은 많이 엿보였다는 평가다.

김지태(사·행정 97)군은 이번 대총학생회에도 들어 '이런 총학생회가 지난해보다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사를 많이 마련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총학생회장 유복재(사·신문방송 96)군도 "학생회와 학생의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제2기 한국외대 비정규학생연대 '외인시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민(법·법학 96)군은 이번 3기대 총학생회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특히, '대총제 등 총학생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살펴보면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인다'며 총학생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그는 "학생회가 학생들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나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학생들과 학생회가 더욱 친숙해 지려면 일

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상반된 총학생회의 등록금투쟁은 예년에 비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외인시대 운영위원장 박종민은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은 잘 한 반면 등록금 문제와 같은 현안은 너무 늦게 대응했고 방법도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유복재군은 "이번에는 관성적인 투쟁방식에서 벗어나 등록금 문제를 학생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과 발정요구안을 만드는 것도 학생들의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상과정에서 대공공교육실시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항상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복지사안에 대해 총학생회장 유 군은 "그동안 복지 사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한 예로 학생회 1층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을 만든 것을 꼽았다."

그는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계단차량 완수'를 첫 순으로 꼽았다. 유 군은 이 상연대에 대해 현재 이사추진위원회 구성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의 2학기 남은 과제에 대해 새내기 한영환(법·법학 03)군은 "농구장 조영사업이나 체력시설 확충 등 학생복지에 관한 것이라도 신명 써주는 총학생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권정우 기자
tingu@hanmail.net

용인, 학군단 공간문제 불거져

독립건물 아닌 공대 건물에 상주

최근 용인배움터 정보산업관련물 내에서 학군단 공간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는 경희대나 서울배움터처럼 단과대 건물과 학군단의 건물이 독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군단 대대장 황진호(동유럽·원거리1 00)군은 "우리는 공대건물에서 지내는 것이 결코 편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학생이기에 앞서 군인이라 보니 권리를 주장하는 것 보다 희생을 하는 측면이 크다. 우리의 입장은 학교측에 따르면"과"고 전했다. 얼마 전 공대 학생들이 학군단내의 기기를 들어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로 격부하"고 물리적 힘으로 해결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할만하다"고 말했다. 공군으로서 공대 학생들과 우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며 말했다.

학군단 공간문제에 대해 지난 달 20일(목) 학군단 외부에서 안방만 총장은 "분종중 열강독한 건물들 리모델링 해서 독립건물로 나갈 수 있게 할것"이라고 말했다.

학군단 공간차지 문제에 대한 공대내의 의견은 우선 공간차지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군단은 58명이 70명이 넘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전자공학과·디지털정보공학과 등 여러 과 과방은 6명 남짓하며 공대 동아리 로24곳은 4명 남짓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학군단내 군대시설이라 학생들의 면학 위기를 해준다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용준(정보산업공·전자공학 02)은 "학군단에게 다른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대 내에는 많은 과방들이 있는데 솔직히 공간이 너무 좁다. 학군단이 공대건물에서 독립된다면 과방의 공간이 넓어지 과에 결속력도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대 학생회장 윤태호(정보통신공 96)군은 "현재 공간조정위원회에 학군단 공간문제에 대한 인원을 상정한 상태이다. 이미 공대학생과 공대학과 등에서는 공대내 학군단 공간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측이 조속히 공대 내의 학군단 공간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주연 기자 naok777@hanmail.net

용인총학, '문화기획력' 돋보여

복지개선됐지만 등록금투쟁 활발하지 못해



1학기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의 전체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학자추장 이동수(인문 사회)군은 "교통과 등록금 투쟁부분은 많은 성과 속에서 빠르게 처리가 되었다"며 "하지만 아직도 용인배움터라는 산악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학생지원처 주임 최태경 씨는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문화행사들이 대학 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것 단단 역할을 해준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 반면 공성현(동유럽·유교과 96)군은 "학생들의 의견과 학생복지에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등록금 투쟁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학생 지원처 주임 김태경씨는 "비 학생 중 등록금 조정위원회에 용인 배움터가 참여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학생들의 이유로 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또한 김성욱(동유럽·체코 97)군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온 것 별로 느끼지 못했다"며 "결과는 투쟁하는 모습도 잘 안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

등록금 투쟁과 관련해 학자추장 이동수군은 "올해 왕년의 분위기는 예전처럼 완강한 등록금 투쟁의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

이고 조금 아쉽긴 하다"며 하지만 "4차에 걸친 등록금 투쟁과 용인배움터위원회(학운위)의 무산 등 무척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딛고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의 학원자주와 투쟁에 대한 평가에 대해 학생회 주임은 "올해는 등록금 환불보다도 학생들의 과외비와 달는 교통문제 스쿨버스 10대 증가와 지금 진행중인 학회 동아리 연승 설립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은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김성욱(동유럽·체코 97)군은 "아직 교통문제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스쿨버스의 증가 등 분명히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과 과방의 화장지 제공과 환경기 설치 등 사소한 부분이지만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

이번 총학생회의 주된 공약중의 하나였던 '학내 다양한 문화공간'과 '사이버 학생회' 건립 등 학생회와 학생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에 공성현(동유럽·유교과 96)군은 "대총제는 지금까지의 총재 중에서 가장 학생들의 발걸음을 잡는 다양한과 참신한 불거리의 행사들이 많았던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

이와 이동수 군은 "세태와 대총제 정기학생 총회 등 좀더 참신하고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대총제라는 용인배움터를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학기 총학생회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김성욱(동유럽·유교과 96)군은 "가장 기본적인 과 학생들부터 살리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다.

최민지 기자

'통일 U 대회' 현실이 된다

'통일 U 대회 시민연대' 결성 예정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축제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에 북한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일 U 대회'를 만들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U대회의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와 U대회 대대장 준비위원회(이하 대대장 준비위)가 북한 사파르투 구상에 대한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난날 30일에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일유니·비서도시 시민연대(가)이하 시민연대' 구상을 위한 준비모임을 거쳐 이러한 움직임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시민연대에는 민주노동 대구지역본부 등 5개 대구지역시민 사회단체들과 대대장 준비위 소속의 대구대정북지역 대학(5월 30일 집계)까지 참가자를 밝힌 상태이다.

30일 시민연대 4층 강당에서 첫 준비모임을 가진 시민연대는 이날 발원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일 U 대회' 만들기 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연대에는 "북측을 불러만 북·미간의 대립의 격화로 한반도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북측선수와와 응원단을 구할함으로써 U대회를 통일대회로 만들어야한다"는 한반도의 평

화정착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며 "무엇보다 주최도시인 대구시민으로서 U대회의 성공과 남북 화해와 협력의 증진 및 평화와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자 한다"고 결성취지를 밝혔다.

시민연대의 중심사업인 도합 사파르투(가칭 이라)를 응원단(구)을 중심으로 한 응원사업과 북한선수 환영·문화사업.

시민연대는 지난해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모 범칙한 활동을 보여준 부산의 시민사회연대의 관계자들을 조만간 대구로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응원단 모집(6월중순~7월 중순), 공식 출발(7월 하순), 시민문화제(7월 하순), 단거리 달리기대회(7월 중순), 응원단 복(8월하순) 등의 흐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고 민다.

북한대표단 도착 당일에는 선수단 환영 및 기타 통일리레이드 등 다양한 환영행사를 계획 중이며, 1시간 1경기 응원가, 통일 서조 판 매, 응원가·응원구호·응원 품지 공보, 참가 기말 및 평화열원 자전거 행진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통일의를 고취할 수 있는 행사들도 준비중이다.

FBS 가요제 열려

지난달 28일(수) 용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대교육육공부(FBS)가 주최한 제 19회 FBS 가요제가 열렸다. 이번 가요제는 이리크 정영과 북악문예를 미해관주의로 인해 불거진 문화에 대한 열의를 담은 '명화를 부르는 FBS'가요제 라는 주제로 치러졌다. 문도현, 성영기 아니 문사의 사회로 진행된 본행사는 용인대 HJFS 의 공연으로 첫막을 열었다.

이번 본행사는 지난달 17일(토) 예선을 통과한 8팀이 참여했다. 특히, 8팀의 공연 중에는 '자녀 우습게있던 이리크(이)경(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협정기로 안기를 끝냈던 경기에 '슬픈 바렐'의 윤정복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지하를 흡사한 무한대 '하루설'의 Rebox팀이 차지했다. '슬픈바렐'의 윤정복군은 '명성 잊지 못할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회의 심사를 맡은 3인자(3인)는 판 권과희의 조화를 중요시했다"고 심사기준을 밝혔다. 박진영(사유법·영어 03)은 "이번 가요제는 특별한 주류문화가 있는 대교문화에 큰 몫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은희 수습기자 oedaepress@hanmail.net

용인배움터, 여중생

1주기 추모사진전 열려

용인배움터 여문관과 인문경관사에서 지난 26일(월)부터 시작된 '6.13 효순, 미선이 1주기 추모 사진전'이 오는 12일(목)까지 18일간 열렸다. 총학생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의 취지는 다시 한번 추모하, 미선의 죽음을 기리고, 주한미군철수와 소(30XFA) 폐지, 그리고 미국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진전과 함께 총학생회에서는 '6.13 효순, 미선이 1주기 추모대회' 준비위원회를 모집한다. 그 결과,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와 관련, 사유법대 학생회장 원종관(사유법·영어 98)군은 "준비위원회를 모집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사업중에 하나이다. 그에 앞서 학생들은 우리자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수습기자 oedaepress@hanmail.net



민주적이고 좀더 자주적인 정부, 하나된 조국을 이룩하고자 했던 대학생들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는 한국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여전히 '의미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꾼다면 이 시대 대학생들에게 더 이상 이직의 굴레를 씌우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학생운동의 대표제인 한국대학총학생연합 합법화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이자,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 진보에 이바지 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합법화에 대학의 양심이고자 하는 대학생문기자들의 동참이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입니다.

>>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전국대학신문 기자 선언문 중에서

수배·연행으로 고통받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식발 뿐입니다

한총련 합법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모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대학신문사는 정부의 합법화 결단을 촉구합니다

전대신문사 장웅대신문사 서울대학교보사 세종대학교보사 사립대신문사 의대신문사 한양대신문사 황금대신문사
충청대신문사 서경대학교보사 동대신문사 한경대신문사 건국대학교보사 강남대학교보사 광명대신문사 안양대신문사
건국대신문사(중주) 중주대신문사 청명대신문사 충북대신문사 사립대신문사 교향대신문사 한국기술대학교보사
전북대신문사 부산대신문사 부산교대신문사 한국해양대학교보사 경향대신문사 부세대신문사 신대대학교보사
경일대신문사 영남대신문사 경주대신문사 후쿠대신문사 경포대신문사 안동대신문사 경인대신문사 대구대신문사
대구교대신문사 대구대신문사 강원대신문사 순천교대신문사 연세대학교보사 강릉대신문사 강원대신문사 강원대신문사
전주대신문사 전주대신문사 양양대신문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요일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월 (2일)	북아문 (W1,500)	창치동 (W1,500)	포구리 (W1,000)	광나문 (W1,500)	소고기대 (W1,000)	면 (W1,000)
화 (3일)	두문 (W1,300)	북문 (W1,500)	화사동 (W1,500)	남문 (W1,400)	산대 (W1,400)	김치 (W1,200)
수 (4일)	체육관 (W1,000)	소고기대 (W1,000)	대우 (W1,000)	버섯 (W1,000)	김치 (W1,000)	백미 (W1,000)
목 (5일)	오곡 (W1,400)	상곡 (W1,500)	학장 (W1,500)	소고기대 (W1,500)	오곡 (W1,500)	열우 (W1,200)
금 (6일)	현 총 일 (후일)					

용인배움터						
구분	어 문 권			후 복 관		
요일	종식1	종식2	복식	일품	분식	양식
월 (2일)	용인 (W1,500)	수대 (W2,500)	광주 (W1,300)	개대 (W1,000)	리자 (W1,200)	도대 (W2,000)
화 (3일)	고대 (W1,500)	후대 (W2,000)	미대 (W2,000)	한대 (W1,500)	한대 (W1,500)	오대 (W2,000)
수 (4일)	개대 (W1,500)	미대 (W2,000)	여대 (W1,300)	한대 (W1,500)	모대 (W1,200)	지대 (W2,000)
목 (5일)	한대 (W1,500)	수대 (W2,500)	전대 (W1,300)	한대 (W1,500)	미대 (W1,200)	제대 (W2,000)
금 (6일)	현 총 일 (후일)					



대학문화, 우리가 주인이 되자

우리의 문화, 특히 대학생들의 문화는 고등 학교 시절의 문화와 거의 다르지 않다. 고등학교 때의 입맛에 맞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대학에 그대로 유입해 왔고 그 것이 현재의 대학문화가 되었다. 대중매체 유명 가수가 공연할 때의 공연의 열광적인 모습은 실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를 바 없었다.

무엇의 시대라 불리던 80년대와 90년대, 통가·막걸리·종류 등은 싸움의 정장에서 한 발 물러 많은 사람들이 접하며 공감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다.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학문화 스스로 한류화된 자신들의 의의, 그리고 당시 사회를 반영하며 대학생들에 의해 문화가 형성되었다.

문화의 의미는 문화산업에 의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수용 행위 속에서 함축되는 것이며 모든 대중문화는 문화산업의 논리 속에서 부여된 지배적 의의와 그것을 수용하는 대중이 부여하는 의미사이의 결합과 투쟁의 영역이 된다. 일반적으로 지배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배와 저항의 의미를 담고있는 그라피티 체계도 아니 투쟁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열린 민중가요인 'fucking USA'나 '포리부시'를 듣고 노래가 단순히 즐거기 위함이 아니라 저항이 될 수도 있음에 신념을 느꼈던 것과 같다. 우리 문화의 주인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번 5월 축제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국대학생 문화 제전은 이러한 점을 만들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문화제전의 첫 번째 "관객" 모여 대중문화 열어보세"는 풍물패의 장고소리와 함께 시작되

었다. 부산대·울산대·조선대 등 8개 대학의 풍물패 연합회가 참여해 반민권과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시간과 함께 느끼는 공간을 만들었다. 풍물 한마당은 "보고 듣는 공연 문화에서 우리식의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바탕'의 정을 열었다. '봉산천하대본' (鳳善天下大本)을 앞세운 풍물패의 농악과 한류인 5월 축제 중앙문화의 품격이 이어, 나머지 7개 대학의 풍물패 연합회는 가두 행진을 통해 행사에 동참했다.

경상대는 '진주 삼천포 12자 꽃'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70여명의 학생들이 하나되어 우리 음악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전남대 풍물패 연합회는 매우 활요임이다 전체 풍물 동아리들이 모여 이번 공연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나머지 다른 대학 풍물패연합회들은 참작 풍물공연으로 서울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어 펼쳐진 두 번째 춤 한마당, 물결으로 표현하는 반민권.

미국 국기가 새겨진 군복을 입은 이들이 한복을 입은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한복입은 사람 중 하나가 풍자가 풍자와 군복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마야보라 학자만 역시 그도 쓰러지고 만다. 하드코어의 공격적인 랩에 맞춰 대학생들은 격렬한 움직임으로 5.18을 표현해냈다. 연세원주캠퍼스 중앙문화제인 '자주사랑'은 "춤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춤' 즐겁게 생각을 표현하고 놀이로서 투쟁을 한다"는 말이 춤마당의 요지이다.

행사에 참여한 정은희(동국대)장은 "새해가 돼 처음으로 출발식에 오게 되었고, 현장에서 느낀 한류현은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다"고 한다. 노래와 춤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경험이 한류현에 대한 인식을 바꾸

게 했다고. "산바라보, 후배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경험을 함께 하고 싶어서 참가했다"고 장담은 말한다.

내 번째 행사인 락 캐스터링, 주제는 '반전과 평화'를 노래했다.

락의 드림소리에 공명하는 심장은 투쟁적인 상징박동과 달랐다. 락은 그 기원부터 저항의 역사를 가진다. 락의 상징적 락 메달러는 찢긴 청바지·간마리·쇠사슬 등은 사회 비판적인 거시와 함께 저항의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문화제전 락캐스터링의 참가자들은 단순히 드림소리로만 락이 되고 주장하지 않는다. 반전과 평화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부르며 관중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는 그들, 서울산업대의 참가를 세미치는 "무대에 올라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담은 노래를 부르고 듣는 이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춤, 노래 한마당은 단순히 몸짓의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대중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꾸준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사 사회를 맡았던 김경애(계명대 부총학생회장)의 말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문화는 대중문화의 바깥에 어디에서가 아니라 바로 대중문화의 그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 '대중문화는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통념을 반박적인 사고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열리지 않게 할 뿐이다.

대학문화는 분명 다양해졌다. 그러나 '대학생'의 특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대학문화는 의미있는 다양성이 아닌 의미없는 풍부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만들고자 한 것이 1회 한국대학생 문화제전의 시도였다.

자심기 수습기자
dammy715@hotmail.com

대학언론기자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의 만남

“한총련 합법화 문제, 노무현 정권에서도 거론되는 것은 치욕”

한국대학생 5월 축제 자리에서 대학언론기자 자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최근 프랑스 사회당 초청으로 유럽지역을 방문하고 지난 5월 26일(월) 한국으로 돌아온 권영길 대표에게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및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날 자리에는 대학언론기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반도 전쟁 위기 해법 ▲한미정상회담 평가 ▲한총련 합법화 등의 내용으로 1시간 30분여 가량 진행됐다.

이러한 전쟁 이후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더욱 조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러한 전쟁 이후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전쟁의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동안에 수 많은 남북 사람들은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 전쟁이 일어나는다는 식이다. 결론적으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북핵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그 책임은 바로 미국에게 있다. 전쟁을 막아내려면 94년 제네바 합의사항을 위반한 미국을 규탄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철회할 것도 주장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일러서서 결국 외교라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대통령은 취임 후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고 했다. 그 말은 정

확한 판단이자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 생각한다. 전쟁을 막으려면 미국에게 끝내 전쟁은 일으켜서는 안 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밖에 있게 말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어려울 것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민족의 생명인 달린 전쟁만은 막아야 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렸다. 굴욕적 외교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아낼 수 없다. 만약 알고 했다면 국민을 저버린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노 대통령은 비모른다.

반박 권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범의를 했다면 부시 대통령에게 무엇이 말했는지?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미국의 무력적 행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막아내

위에 남북한 민족이 함께 모든 역할을 쏟았다고 말했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에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게 살 것을 택할 것이냐? 민족 전체가 결연하는 것을 두고 봐야 할 것이냐?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미국에 강하게 어필할 것이다.

5·18이후 정부의 한총련 탄압이 강경집행을 보이고 있다.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사자 문제에 대한 입장?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개혁정권을 포괄하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거론되는 것은 치욕이다.

한총련 합법화는 거론대상이다. 대한민국 국제사회의서서 미팅한 나라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합법화는 되어야 한다.

사상·결사·집회의 자유는 필요하다. 먼저 집회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5·18 때 대통령을 가로박을 수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한총련을 비롯한 핵 개발운동 단체들이 새로운 학생운동을 추구하면서 다 나온 학생운동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한총련이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학생사회 파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민노당은 모든 단체를 다 수용한다. 초국적 금융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신자유주의가 총아하는 미국 일본도의 사회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 도덕적이었던 하나로 힘을 모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 안에서 나타나는 정파 갈등은 졸업 후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대졸 신입사원 모집

항상 신입사원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19,000명의 포스코 사람들. 그들과 미래를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1. 모집분야 및 전공

구 분	모집분야	전 공	인 원
기술계	생산기술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재료, 화공, 토목, 건축, 산업공학	00명
	품질/환경/에너지		
사무계	마케팅	경영, 회계, 재무/회계	00명
	인사/노무	경영, 회계, 인사, 법학	
	구매/총무	경영, 회계, 인사, 법학	
	구매/총무	경영, 회계, 인사, 법학	

* 근무지는 서울, 광주, 양주시 등으로 지선사 동시 선배, 선배에 한한다.

2. 지원자격

- '93년 8월, '04년 2월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예정자(졸업예정자)
- 모집분야 해당 전공자
- 최종학교 성적 누계평균 100점 환산시 85점 이상
- 어학 TOEIC 사무계 800점, 기술계 730점 이상 (TOEFL 사무계 PBT 575, CBT 233 / 기술계 PBT 540, CBT 206)
- 영역별 또는 면제자

3. 지원방법

- 지원서류: 포스코 홈페이지(www.posco.co.kr) 채용사이트에 On-Line 등록
- 기 간 : '03년 6월 2일(월) 13:00 ~ 6월 14일(월) 13:00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인성검사, 신체검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기타사항

- 지원서 작성제일 후 추수 시점과 함께 합격자 발표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및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등유족자녀에한한방법에 의거한 취업보조대상자는 우대합니다.
- 채용관련 문의는: POSCO 인사실 인사팀(02-3457-1600) 또는 인사팀(02-3457-1600)

posco
포스코
www.posco.co.kr

5월 축제에서 만난 우리학교 정치수배자들

한총련 학생 수배 해제 촉구 선언을 한 이장희 교수를 만나

수배해제, '동정' 아닌 '이해'로 이뤄지길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강길수(전 부총학생회장, 베트남어 98)



고희현(98년 총학생회장, 언어학과 재학)



이동수(현 총학생회장, 사학과 00)



김제현(전 총학생회장, 노어 99)

지난달 18일 광주 망월동 모퉁에서 한총련 학생들은 사흘간 찍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법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방미 외교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공개서한전달 및 기자회견으로 계획된 평화시위는 경찰의 민중간담대와 언론의 사찰수배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폭도 보도로 인해 폭력시위로 변질했다. 이로 인해 '느낌이 좋다'는 평을 받았던 한총련 학생들은 '난쟁이'가 되었고 무엇보다 인권적인 측면에서라도 해제를 해야 했던 '정치수배학생'들에 대한 입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사람답게 살 수 있으리라'는 전국의 수배학생들의 꿈은 다시 한번 무너지고 말았다.

표했다. 하지만 4명의 수배자들은 모두 "수배 해제보다 중요한 것은 해방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맘 편하게 내 이름이 적힌 의료보충증 가지고 병원 한바퀴 가보면 좋겠어요"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들의 생활은 이미 여러 매스컴을 통해 밝혀졌듯이 비참했다. "아프면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라며 짧게 문을 때는 강길수군은 아프면 누군들 서랍장 밑에 있는 수배생활이 가장 괴로웠

수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핸드폰 사용을 하려 보면 나의 위치가 드러나는 이유로 핸드폰 역시 사용하지 못한다"며 "인터넷에서 민화 관련을 봐도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시대에 수배자들이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 것"이라며 그들의 고충을 전달했다. "한미디로 문명의 이기를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수배자의 삶"이라고 정리한 강길수군은 "모름 세상엔 전화번호를 수첩에 쓰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수배자들 밖에 없을 것"이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하는 불안감이 짙어 갔다"고 말하는 김제현양의 이야기는 그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끔 했다.

우리 학교에도 '정치수배'들이 있다. 서울대생들의 강제(전 총학생회장, 노어 99), 강길수(전 부총학생회장, 베트남어 98)군과 용인대생 이대수(현 부총학생회장, 사학 00), 양경진(전 총학생회장, 플란드어 95)군, 고희현(98년 총학생회장, 언어학과 재학)군, 바로 이들 다섯 명이 우리학교의 정치수배자들이다. 한국대학생 5월 축전이 열렸던 6월 1일 연세대학교, 이들은 만나 웃음 나누며 '정치수배'를 제한 주입, 바로 그곳에서 양경수군을 제외한 4명의 수배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만 했던 시위

강길수군은 "수배해제조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저보다 오래된 부모님들이 기뻐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방승에서 진행하는 토론까지 다치오셨을 정도였죠. 그랬는데 시위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버려 부모님들이 많이 실망하셨죠. 그만큼 기대가 크셨으니까요"라며 부모님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 시위는 당연히 해야만 했던 시위"였다고 후회하진 않음을 전했다. 강길수군은 또한 "괜히 기대만 건넸었다"며 "이렇게 쉽게 안될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 켠에는 기대감이 있었"는 말로 아쉬움을 표했다. 고희현군은 "다른 것은 안되더라도 이것만 될 것 같은 환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며 언제 해 하고 있는 수배생활을 접을 수 있었던 기대에 대한 아쉬움을

만 바로 아파서 앓고 있다. 듣고 있던 이동수군도 맞장구를 쳤다.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생겼어요. 고혈압이 요물, 무릎이 다... 뭐 한두군데만 문제있는 것이 아니라구"라며 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토로했다. "한번은 제 입술이 심하게 부르트던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 학교 보건소에 갔었죠. 하지만 식단이 지나도록 입술이 낫질 않아서 물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다녀오니 3일만에 괜찮아졌다"는 김제현군은 "수배 2년 차인 우리가 이 정도인데 6, 7년 차들은 좀더 병원이 따로 있을 거예요"라며 병을 키우게 하는 사정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비단 건강상태 뿐만이 아니었다.

"수배라는 것 자체가 불효"라는 강길수군의 말은 고희현군의 이야기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졌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쓰러지셨어요. 당연히 아버지 곁에서 지켜드려야 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결국 병원에서 사설이러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도 오지 않을거라는 말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죄송할 수가 있어요" 목이 메인채 그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그는 이번 아버님도 그날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강길수군 또한 아버님에 부모님께서 카네이션을 받으려 학교로 찾아왔는데 불효를 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연행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한번은 꿈을 꿔요. 집에서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도 안 먹힐까봐

'형! 형은 왜 집에 안 들어가세요?'

이들 수배자 4명의 공통점은 모두 학생 대표이거나 대표자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 공통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한 단체내의 대표자만 되어도 수배령이 떨어지는 현실이 그들을 수배자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배자인 줄 몰랐다"는 말을 자주 듣는 다는 강길수군의 말은 많은 학생들이 대표자가 되면 동시에 수배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동수군은 "형은 왜 집에 안 들어가세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수배자이며 왜 수배자가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슬픈 마음이 든다고. "작년 인문대 단체장을 할 때부터 수배자가 됐어요. 저는 하우토와 잘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수배자 결심한 것인데 학우들이 너무 기뻐하게 보는 것 같다"며 씁쓸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특히 작년 서울대생 총학생회장이었

던 김제현양은 "입금이 끝났는데 왜 아직까지 수배중이냐"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학우를 제외한 수배자 해제를 현실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정사에서 대해서 '애초에 도둑놈이 아닌 사람에게 앞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서약서를 요구한 건데 왜 아직까지'라는 비유로 그 요구가 얼마나 어리개지 않는 것인지 지적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인정받는 것'

수배가 풀리다면 그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하지만 장강 그늘이 뒤흔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 학교 안에서 후배들과 어울리는 것, 집 안에서 누워 걱정없이 TV를 시청하는 것, 함께 운동하던 선배를 면회하는 것, 그들의 그런 소박한 소망을 들으면서 그들 앞에 붙은 수배자라는 호명이 정말 어슬렁지 않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마지막 말을 던지는 그들을 보며 모두가 자들이 왜 수배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한총련 학생 수배 해제 촉구 선언을 하신 배경은?

근간 언론에서 한총련 학생 수배 해제의 한총련 합법화 논의가 상당히 활발해짐에 대해 한총련 수배 학생들의 고통과 번신을 지켜보아온 교수 입장에서 매우 진한적인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전 대법원에서 강령이 많이 변화한 10기 한총련에 대해서 다시 이력단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수배자를 구속하는 시위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런 배경으로 수배해제 촉구선언을 한 것이다.

한총련 학생들이 수배자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력단제 규정 때문인데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존폐의 이유가 사라진 법이다. 구시대적 압박을 얹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1988년 만들 당시에도 당 법이 만들어지면 없었던 한사법으로 만든 법이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이미 교류 중이다.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무시하며 계속 북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6·15 남북공동성명을 복을 적어 나.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가안보는 국보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지금까지 국보법은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면서 그 폐해가 증대되고 있다.

한총련 수배 학생들을 인권적인 측면에서라도 수배해제 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나라의 인권변호사들이 국제인권단체에 제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들이 다년간 학교 공장에서 힘든 수배자 생활을 하며, 특히 추운 겨울에는 장갑장갑 안에서 체포되는 악몽을 꾸면서 새우잠을 자는 생활을 숨겨보고 들었다. 또한, 그 아이들의 한숨과 눈물도 꼭꼭꼭 바라보았다. 이들이 인권단체 살지 못한다면 그들도 수배해제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지난달 18일 광주 망월동 모퉁에서의 사건으로 정부는 한총련 합법화 및 수배해제를 검토할까?

김종훈 기자
yonghun2000@hotmail.net

정도는 병원에서 입원을 선택했는데...

처음 내 시위 언론의 해독으로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 가더라도 뜻이 오묘할 때들이 대는 언론과 한총련의 시위를 처음부터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하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대통령이 표한 '난쟁이'에 놀랐다. 그저 '난쟁이'를 경멸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통령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한총련도 진작, 전술 면에서는 평화적인 방법을 고수해야 한다. 학생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학생운동이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화를 위해 커다란 공을 세운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하는 소리를 귀기울이면 큰일날까? 노년 것처럼 대응하는 정부를 보면 답답할 뿐이다. 한총련 합법화나 수배 해제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학생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언급했듯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생운동을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한 한 가지 사설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학생운동의 과거였던 것이 시민주체나 사회에서 그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점 점 그 역할이 커져 갔다. 이것은 기존의 학생들이 했던 역할들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학생들의 몫은 여전히 중요하다. 나는 학생들의 운동에 전문성, 책임감, 대중성, 합리성 이 네 가지 요소가 불문연한 힘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운동에는 정치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좋지만 학생이 아닌 비정치적 이슈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학생들의 숙제가 아닐까 한다.

김종훈 기자

yonghun2000@hotmail.net

언어로! 세계로!

개강: 8월 초

오늘 청문외국어학원에 와 보셨어요?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6월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이번 여름은 시원한 청문에서!

- 영어왕초보, 한민회화, 미인회화
- 영어회화, 영문법, 독해/작문
- TOEIC, TOEFL
- 편입영어
- 통역대학원반(일어)
- 일본어, 중국어
-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토요강좌

부설청문외국학센터

POWERCHUNGMOON
www.chungmoon.co.kr

정문의국어학원
동4역 4층동구 TEL. 02-738-5151

경희대학교 주간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전 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

- 재학생 전액 장학금 (학비, 숙식비, 교재비 전액 지급)
- T.A 및 R.A 기피 부여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해외 단체 연수 실시(교내부담)
- 해외 명문대 박사과정 유학 장학금 지급
- 해외 단기 인턴십 제공 지원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전원 기숙사(생생) 생활

1. 모집분야

구분	모집학과
석사과정	국제평화, 국제지역, 국제·공공정책, 국제경영, NGO, 사회정책

2.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년 6월 9일(금) ~ 6월 20일(금)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기간: 2003년 6월 25일(수) ~ 7월 4일(금)

3. 진학방법

- 논술, 영어(TOEFL, TOEIC 또는 TEPS 고득점 취득 성적 제출) 및 면접

평화복지대학원 입학부 (http://gip.khu.ac.kr)
TEL: 031-570-7014~6 / FAX: 031-528-7630

경희대학교총장직속 대학평화발전연구소
경희대학교
www.khu.ac.kr

배낭여행! 어학연수!

외환은행이 함께합니다

- ▶ 해외에서 국내전화요금을 인출할 수 있는 유네스코 공인 **국제학생카드** 발급
- ▶ 해외어학연수생을 위한 **어학연수자금대출** 지원
- ▶ 유럽의 심장, 식당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EURO VISA** 여행자카드 발급
- ▶ 건강 미300불당당액 이상 환진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 ▶ 해외건강보험료율 15% 절약할 수 있는 **해외건강보험카드** 제공
- ▶ 국내은행 중 **최다 31종류 외환환할** 보유
- ▶ 전화 통로로 해외송금 끝! --- 전화로 OK 해외송금서비스

● 외환포탈사이트 (www.FXkeb.com)만의 특별한 할인 (특별한 송금)

- ▶ **장사대** 사대 특약반은 월별 환율변동, 송금환율에 가입하여도 모랄수록 더 바칩니다.
- ▶ **인비트** 사대, **노비트** 사대 특약반은 기본, 가장 저렴한 환율환할입니다.
- ▶ 노비트환율과 함께 4천 바이트는 더욱 바칩니다.
- ▶ **매력한 Event!** www.FXkeb.com으로 오세요. 많이 보됩니다.

KEB 외환은행
www.FXkeb.com

yes 콜센터: 서울·경주(02) 3709-8000 · 지방 1544-3000

완 용 우 대 권
통화율에 따라 10%~30% 외환은행 환율지정

학내 관련 포털사이트를 찾아서...

클릭만 해도 반은 얻는다!

HUFS Board 이곳은 읽는, 얻는 그리고 참여하는 사이버 공간입니다. ^^

외대인을 위한 정보포털
HUFSLife.com

전세 : 1026091 오늘 : 2786 현재 : 18

HOME | SiteMap | Contact

Member Login

이심대한 나이는
 무언가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대다.
 그것이 사랑일지, 입이 쓴 하나씩은 필히 사로잡힐 수 있어야
 인생의 부피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홈스라이프
 HUFSLife.com

매월 YAMYAM PC방 하루 매출 전액 소액 소액 기부로

공지 사항

게시물 관리 수칙입니다. (04/22)

안녕하세요.
 HUFSLife 운영자입니다.

HUFSLife 기부 및 후원

우리학교와 관련한 정보·포털사이트는 무엇이 있을까? 물론 학교 공식 홈페이지(http://www.hufs.ac.kr)가 있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공식적인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탓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학생들이 있다. 외대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할 우리학교 관련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모든 것, 이 이상의 정보포털 사이트는 없다!

홈스라이프(http://www.hufslife.com)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이미 잘 알려진 온라인 상의 정보포털 사이트이다. 현재 100만명이상이 방문했고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했다.

홈스라이프는 2002년 2월에 문을 열어 생겨난 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은 초보 사이트이다. 그러나 생성 초반기에 방문자가 수가 300여명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 100만명 이상으로 늘어 그 인기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간혹 올라오는 욕이나 비방 글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원래 취지가 잘 살려져 학생들 사이에서 편리하고 유용하다는 반응이 많다.

웹스 이곳에 잘 들른다는 박연주(통장·중국어 02형)는 "일일이 대자보가 붙여진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은데 홈스라이프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우리학교 학생들이 요즘 관심있어하는 것을 알게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어 좋다"

며 "수업에 빠졌음에도 관련한 경우가 많았을 때 교수님과의 수업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전했다.

게시판을 크게 '공지사항', '소식', '레뷰', '취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라이프 란에는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모여있다. 스타디 란에서는 수업에 빠진 학생들을 위해 시험범위나 휴강에 대한 공지사항을 일러주어 요즘 가장 민감한 취업에 대해 각 기자의 면접 유혹이나 합격 비결을 알려주는 란도 마련하고 있다. 대학생활에 가장 즐겁게 고민하고 느낄 수 있는 연예에 대한 정보는 러브 란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 데이터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고 관심을 하는 게시판은 커뮤니티 란의 '좋은관객'인데 학교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가끔 익명성을 이용해 욕이나 비방글들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홈스라이프의 운영자 허태환(서양·영어 07군)은 "이런 점 때문에 실명제와 로그인제를 고민하고 있으나 처음 취지가 외대인들을 위한 100% 오픈 공간인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로그인제를 도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게시판 내에 스로 게시글을 올리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군은 "학생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서 도움이 된다고 메일을 보내올 때 가장 보람이 된다"며 "앞으로 익명성 문제

의 해결과 비활성화 되어있는 몇 개의 항목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전했다.

홈스라이프가 학생들을 위한 정보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나 서울배움터에 관한 내용이 많아 용인배움터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계기로 용인배움터 전용의 정보 포털사이트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홈스 매거진(http://hufsmagazine.com)'이다.

외대인의 잡지라는 친숙한 의미로 문을 연 이 곳은 아직까지 각 항목들의 내용이 전부 채워지지 않아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학교 학생들의 공간이니 만큼 홍보를 통해 점점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홈스매거진의 운영자인 황규환(서유럽·영어 06군)은 "이 공간이 일반인인 잡지에서 아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고급정보들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학교에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홈스매거진'라는 영어로 운영되는 인터넷 교양생활 미디어 같은 것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같은 책, 반 이하의 가격으로 구입한다

이곳은 바로 종교교 교한 홈페이지 홈스북(http://tiny.dreamwiz.com/hufsbok)이다. 비싼 등록금이 비싼 교재까지 여러 권 구입하려면 넉넉지 않은 주머니 사정이 더 민망치 않게 버려지게 되는 교양서적, 그 편이 아니라

가타 여러 저자책이나 교사를 위해 필요한 책들까지 이 곳에서는 그 모든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현재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던 학생이 졸업 해 일반인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담당 자급부담도 이곳에 들어가 책 고문 등에 참여하게 된다면 용돈도 절약하고 좋은 책도 구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홈페이지는 처음 들어가는 문부터 양배터의 문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좀더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며 가격의 흥정을 막기위해 가격 책정의 권장가격을 명시해 놓았다. 만원 이하 도서일 경우 3000원, 2만원 이하 도서일 경우 6000원, 3만원 이하 도서일 경우 9000원, 이런 식으로 현재는 책가의 30%가 적당하다고 보고 가격을 통일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고있다.

위의 사이트들을 찾아가 보면 실제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모든 것이 다 구축되어 있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사이트 개설 노력이 개개인에게 필요하고 말한다. 외대생을 위한 저렴한 가격의 소량본, 선취배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취업, 결혼, 사회생활 문제 등 선배들이 다양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동호회, 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사이트 등 앞으로 더 많은 정보사이트의 개설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박혜미 기자
 gamszyhemi@hanmail.net

홈스북 운영자 장재용(서양·불어 95학번) 홈페이지의 인타뷰

알뜰함과 정이 있는 곳!



운영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일이 있나?

처음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나도 내가 가진 책들을 많이 올려놓았다. 그리고 교양교재 1권을 2000원에 아껴서 구입하기로 해서 약속을 정했는데, 내가 그 날 약속을 못 지켜 연기를 요청했다. 내일이 미안한 마음에 책을 그냥 드리고기로 했는데, 그 학생과 인연이 잘 안달았는지, 만지 못했다. 꼭 필요한 책이었을 텐데 많이 미안했다.

주요 유명 사이트들 링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찾는 데 불편한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홍보는 어떻게 했나?

검색엔진에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 사이트 개설초기와 내가 학교에 재학중이었을 때는, 매 학기초에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직접 만들어서 도서관 게시판 및 학교 여기저기 게시판 등에 직접 붙여서 광고했다.

즐거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권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현재는 학교에서 홍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다. 홈스북을 가져가는 몇몇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 게시판에 홈스북도 해야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은 거의 개표유입상태이다. 하지만 사이트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이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나?

여전히 원하는 책을 구입하기 위해선 많은 돈이 드는데, 이 사이트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 곳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가 가치는 학생들 용돈절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혜미 기자
 gamszyhemi@hanmail.net

홈스북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기 된 계기?

대학생활이던 때부터 교양수업 때 책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머니가 찢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책을 많이 보는 편이고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다. 인터넷서점이나, 창계한 한책방, 외대 앞에 있는 신교서점 같은데를 가보면 책값이 무척 싸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유용할거라 생각했다.

사이트가 만들어 진 시기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코앞에둔 마지막 주말에 갑자기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MS프론트페이지로 작업시작해서 4시간만에 만들었다. 그전부터 인터넷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하고, 실제 사이트개설 한달전부터 인터넷판과 버그고 있던종이라 빨리 만들 수 있었다. 이후에 2학기의 사이트 개편을 통해서 현재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

사이트를 처음 만들때, 무명의 생각을 구체화한 사이트 모습으로 옮기기 힘들었다. 사이트가 가동된 이후로는 매일 한번씩 들어와서 게시판을 보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했었다. 운영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다.

홈스북 HUFSBOOK

Internet Community for the HUFSSans !!

7스북(HUFSBOOK)은 한국대학교 학생들의 취미 및 취미생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1. 이용방법

1. 판매 및 구입하는 방법: 게시판에 자신의 판매 및 구입을 위해 필요한 게시물을 올리면, 판매,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든 게시물은 판매, 구매, 사과 또는 불고하는 사항의 기록을 찾아서 게시물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ihufsan.com

아이호산에 들어가 보자우요~!

고 조, 우리도 날래

ihufsan

나기 만드는 인터넷문화

책소개



서유기 1, 2, 3

오승은 지음 / 임흥민 역음 / 문학과학사 출판사 / 8,500원

종자와 해와 남인과 제자로 가득한 동양소설의 걸작 「서유기」 원역본. 100회로 구성된 이 소설은 7세기 초엽 당나라 스님 현장법사가 인도 지역을 여행한 역사적 사실에 저자의 환상적인 허구를 가미시켜, 삼장법사와 손오공 일행이 불경을 가져다 천축을 여행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삼국지」, 「금병매사」, 「수호전」과 함께 중국 4대 고전(南唐) 중의 하나로 꼽히지만 다른 작품들에 비해 대대로 한 영역본을 만나기 힘들었던 「서유기」가 7월까지 총 10권으로 완간된다. 「서유기」를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중국 고대 신화와 전설의 장수를 만나게 되는 일이다. 캐릭터 중심의 아동문학에서 벗어나, 만년래 당시의 다양한 정치와 도교를 유익적으로 조망하는 풍자문학의 걸작으로 다시 태어난 「서유기」가 청량하다.

문화 캘린더

공연행사

스탠딩 오라리 (아름의 여인)

기간: 2003-6-6 ~ 2003-6-7

시간: 오후 7시 30분

장소: 오라리

장소: 대오름 극장

위대한 메트로 3회

부제: 7th 메트로 교향악 레스피

관람료: 5석 3000원 4석 2000원 3석 1000원

공연단체: 유라시아 필하모닉

기간: 2003-6-11

시간: 오후 7시 30분

문의: Tel: 02-553-6744

장소: 대오름 극장

장소: 대오름 극장

소릿길 난독극 콘서트

부제: 국립극장 특별기획 공연

관람료: 5석 2000원 4석 1000원 3석 500원

공연단체: 국립극단

기간: 2003-6-11 ~ 2003-6-14

시간: 19:00-자정 7:30 14:00-오후 4:30

문의: Tel: 2274-2600-8

장소: 대오름 극장

장소: 대오름 극장

극단 아연 '달남은 예쁜가리' 하서리

일시: 6.5(목) ~ 6.20(일)

시간: 월-목 7:30, 금-일 4:15/7:15

문의: 0704-2606